



대안가정

통권14호 (2006년 여름/계간) [http : www.daeanhome.org](http://www.daeanhome.org)

2. 기획 / 손에 닿지 않는 아동그룹 홈 활성화정책
5. 교육 / 대안가정 부모 역량강화
6. 대안가정 일기(8가정 발췌)
10. 스케치
11. 상담원 수첩
12. 이별 / 진이를 보내며
13. 만남 / 다혜가 엄마를 만나던 날
14. 상담현황 및 소식
15. 회비(후원) 내역 및 재정
16. 후원안내



▲경북모임

대안가정 부모 역량강화
4회차 『알기쉬운 성교육』



▲대구모임

한/가/정/에/서/한/아/이/를/보/살/편/다/면...

발행인 이수형 / 발행처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발행일 2006. 8. 18
705-8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96-20번지(2층) / 전화 (053)628-2592 / 전송 (053)628-2595

손에 닿지 않는 아동그룹홈 활성화정책

— 아동그룹홈 「해맑은 아이들의 집」 설립 과정에 비추어—

※ 읽기 전에

아동그룹홈은 보육사 1인과 5명 내외의 아동이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는 소규모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아동그룹홈은 전체 공동생활가정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생활가정을 일컫습니다. 법이나 지침 등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 공동생활가정과 아동그룹홈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 대안가정운동본부와 아동그룹홈

2002년 4월, 대안가정운동본부 창립 당시 정 관에는 목적사업에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재 정관에는 아동그룹홈에 관한 규정이 없다. 2002년 6월 대안가정운동본부가 사단법인 허가를 받을 당시, 주무부서인 대구시 여성정책과에서 미신고시설인 아동그룹홈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삭제할 것을 요청하여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04년 7월 13일,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 10호에 '공동생활가정'을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하면서 정부차원에서도 공동생활가정 활성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안가정운동본부가 설립 당시부터 아동그룹홈을 중요하게 고려한 이유는 바로 대안가정운동본부 창립의 시발점이 '해뜨는집'이라는 아동그룹홈이기 때문이다. 해뜨는집은 1995년 10월에 첫 아이를 맞이하여 현재까지 총 8명의 아동을 위탁양육 하였으며, 지금은 입양한 두 자녀와 위탁자녀 둘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하나의 대안가정으로 자리매김했다.

정부주도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이 3년째 접어들면서 위탁보호아동의 영구적인 보호계획 수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친가정으로의 복귀가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친가정 복귀가 아예 불가능할 때는 입양이나 다른 영구적인 보호방

그룹홈관련 진행상황 요약

연도	일시	내용
2002년	4월	사단법인 설립 허가신청 당시 주무관청(여성정책과)에 의해 정관의 그룹홈 운영 조항 삭제 처리됨 - 사유:미신고시설 운영을 허가할 수 없음
	2월	정기총회-아동그룹홈 운영 결의
2005년	7월	정기이사회-그룹홈 설치 관련 본격적인 논의 및 이사회 중심 기금모금 시작
	8월	다가구주택 매입전세 임대사업 그룹홈 임대실시 보도자료 입수 후 시청 주택건축과 민원 문의 - 시행계획 없다는 답변
2006년	2월	정기총회-정관개정 결의(아동그룹홈 운영사업 추가)
	3월	다가구주택매입임대사업 그룹홈 운영기관 신청 - 운영자격 미달을 이유로 탈락처리 됨 (주택건축과와 여성정책과가 서로 상대 부서가 소관부서라며 미루어 공문접수에 어려움을 겪음)
		주무관청(대구시 여성정책과)의 정관개정 불허가 - 사유:법인설립시 허가한 법인의 목적과 다른 사업
	4월	'해맑은 아이들의 집' 기금마련을 위한 LOVE CONCERT 개최 (수익금:약 1,500만원)

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아동을 입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친권문제를 비롯한 법적인 제약으로 친부모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영구적인 보

호계획이 필요한 아동의 대부분이 친부모의 행방불명 내지는 연락두절 사례이기 때문에 입양이 아닌 다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대안가정운동본부가 설립 당시부터 아동그룹홈을 염두에 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였고, 현재 대안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일부가 이러한 사례라 더 이상 아동그룹홈 설치를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는 아동그룹홈 신규설치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법인의 정관개정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설립당시 허가한 사단법인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사유였다.

※ 아동그룹홈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

[2006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에서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아동 5명을 기준으로 하되 7인 이내까지 보호가 가능토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와 인력(시설장 1인, 보육사 1인)을 갖추어야 된다.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 금지 의무)]는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단,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 위배되며, 신고거부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을 기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생활가정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종합해보

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면 지자체는 이를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다.

※ 공동생활가정 활성화 정책의 허와 실

▶ 1인 인건비와 관리비 지원

2006년 현재 시설당 보육사 1인 인건비 16,142,000원(년)과 관리운영비 202,000원(월)을 지원하는데, 전체 시설이 아닌 120개소 시설에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06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총 306개소의 아동그룹홈(법인 150개소, 개인 106개소)이 있고, 여기에 아직 신고절차를 밟지 않은 미신고시설까지 포함하면 실제 아동그룹홈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시의 경우, 2006년 현재 총 6개소의 아동그룹홈(신고시설)이 있으나 3개소만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 다가구매입(전세) 임대사업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재정지원 정책도 있다.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다가구매입(전세)임대사업'에서 전체 물량의 10%를 공동생활가정에 배정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가구매입(전세)임대사업'은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주택공사에서 매입하거나 전세로 임대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운영기관의 조건을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여, 미인가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한 대부분의 공동생활가정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했다.

실제로 지난 3월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만 30여개의 공동생활가정이 '다가구매입임대사업'으로 입주하였고, 타 지자체는 단 한 가구도 공동

생활가정에 배정되지 않았다. 이후 부산시에서 신규 아동그룹홈이 '다가구매입입대사업'으로 주택을 공급받아 설립되어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안가정운동본부 역시 지난 3월 '다가구매입입대사업'으로 시설을 확보하고자 아동그룹홈 입주신청을 하였으나 '운영자격 미달'로 탈락되었다. 전체 물량 중 공동생활가정에 배정된 19개 주택은 목적에 맞는 주인을 못 만나 모두 일반으로 전환되었다.

▶ 로또기금 전세지원사업

비슷한 제도로 로또기금으로 공동생활가정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신규시설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구시의 정관개정 불허로 대안가정운동본부는 신청대상에서조차 제외되었다.

기금조성현황

년	월	일	후원처/후원인	금액
2005년	7	18	이수형 이사장	3,000,000원
	10	18	이태원 이사	1,000,000원
	11	7	이수형 이사장	7,000,000원
	12	19	해피빈모금액	184,640원
		25	예금이자	1,109원
2006년	2	13	송광익 이사	1,000,000원
	4	3	신경숙	10,000원
			최명훈	5,000원
		4	홍석운	15,000원
	5	2	최명훈	5,000원
		19	음악회 수익금	15,323,705원
	6	1	신경숙	10,000원
			최명훈	5,000원
		25	예금이자	6,306원
	7	3	신경숙	10,000원
			최명훈	5,000원
	합계			

※ 아동그룹홈 '해맑은 아이들의 집' 설립을 위한 발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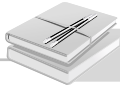
지난 4월 11일 대안가정운동본부는 아동그룹홈 '해맑은 아이들의 집' 설립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대안가정운동본부 홍보대사인 가수 박미경씨를 비롯,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음악가들로 구성된 이간편띠남성양상블과 벨레스테레여성중창단의 참여로 열린음악회에 버금가는 열광적인 무대를 펼쳤다. 음악회에 참석한 시민 1천여명과 참석은 못했지만 티켓구매로 마음을 모아준 시민들의 힘으로 1천5백여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이사장 이하 이사진에서 조성한 1천2백만원을 합해 총 2천7백여만원의 기금이 준비되었다. 그러나 전세자금과 최소한의 초기비용을 고려해도 아직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3월 정관개정과 다가구매입입대주택 입주신청시 대구시가 보여준 태도는 참으로 서운하고 안타깝다. 대구시의 직접적인 제정소요 없이 하나의 아동그룹홈이 탄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당시 주택공사에서는 대구시가 신청서만 보내준다면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었지만, 대구시는 공문접수조차 안 해주려고 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무엇보다 정관개정을 승인하지 않은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대안가정운동본부가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서 시설신고를 한다면 그때는 승인해 주겠다고 하니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친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 현재 대안가정에서 위탁보호 중이나 다시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 그리고 대안가정조차 찾기 어려운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이들을 위해 대안가정운동본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동그룹홈 '해맑은 아이들의 집' 설립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김명희 대안가정운동본부 사무국장

대안가정 부모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4차-알기쉬운 성교육

모든 부모의 어렵디 어려운 숙제, 자녀 성교육! 아름다운 성교육 연구소 정명란 소장님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처음 받아보는 부모님들이 많아 부모님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부모님을 위한 성교육 시간도 가져보아야겠습니다.

6월 12일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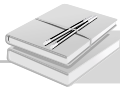


性상식!! 엄마, 아빠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재밌는 스피드 퀴즈로 교육 맛배기~^^

6월 15일
-대구



초경·몽정축하파티, 대안생리대, 월경주기팔찌 만들기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몸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5차-위탁아동 귀가준비

귀가준비는 대안가정 부모님들이 감수해야 하는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은 친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대안가정 가족과 위탁아동은 이별을 대비해야 합니다.

7월 24일
-경북



네 명의 아동을 양육하다 귀가시킨 권미경 님 덕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 갑작스럽게 친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예진이네 이야기에 더욱 귀가 기울여집니다.

7월 26일
-대구



아이와 헤어지는 것도 어렵지만, 귀가 자체가 불투명한 경우 역시 큰 고민입니다. 하지만 우리집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솔이네

2006. 6. 7 / 솔이의 스트레스

그제 작은 오빠 운동화 산다고 갔는데 솔이 보고 여점원 왈, “너 여자니 남자니?” 하네요. 전에 솔이 신발 사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었는데... 항상 치마를 입고 다닐 수도 없고, 머리 기를려면 한참 더 있어야 할 것 같고, 핀을 하니 이상하고.. 당분간 스트레스는 계속 될 것 같네요. 참 며칠전에 셋별이랑 통화하기를 한 30분 하는데 이젠 완전 아줌마 수대(?)... 그 다음날엔 통화 하다가 제재를 당했죠. 아울러 큰엄마의 전화 예절 교육이 이어지고... 솔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2006. 6. 16 / 잘 읽어오

요즘 솔이는 아직은 서툴지만 조금씩 받침없는 글자를 읽어나간다. 1주일분 눈높이를 하루만에 다 해

놓고 눈높이 선생님을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 집에서 큰엄마랑 하는 공부는 잘못하면 야단을 치니까 “조금만 할게요”하며 꾀를 부린다. 하루는 작은오빠가 공부하는 솔이에게 살며시 하는 말, “솔아 큰엄마가 공부할 때 야단치지? 그래서 공부하기 싫지? 큰엄마가 공부할 때 큰소리 지르지 않니?”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솔이에게 이야기한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솔이는 “공부 다 했어요. 이젠 내일 또 할게요”라고 하네요.

2006. 7. 5 / 야단맞고 울고 금방 헤헤거리는 솔이

큰엄마에게 야단맞고 울다가 세수 한 번 하고 나면 서익 웃고는 또 논다고 정신없는 솔이. 일요일 저녁에 발을 안 씻었다고 혼자 화장실 들어갔는데 큰엄마에게 딱 걸렸어요. 세면대위에 위태롭게 엮지로 한발 걸치고 발 씻는 모습을... 저번에 몇 번 위험하니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했거든요. 목욕탕 안에서 야단맞으며 우네요. 왜 그러면 안되는지 다시 설명하고 세수하게 하고 큰엄마가 “절대 그럼 안된다. 위험하니” 하며 안아주니 눈물 흘리고는 큰오빠에게 쫓르 가더니 옆에 붙어서 종알종알 희희낙락 하네요.



대현이네

2006. 6. 8 / 자세히 보니...

우연찮게 다리를 다쳐서 두 주간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 온 대현이를 데리고 아빠와 누나가 병원을 찾았다. 병실에 함께 있던 분들이 아빠 얼굴 한 번, 누나 얼굴 한 번, 그리고 내 얼굴과 대현이 얼굴을 번갈아 보며... 한참 후에 모두가 돌아가고 궁금해 하였던 마음을 쏟아 놓기 시작했다. “만이와 막내는 몇 살 차이예요?” “몇 살에 낳았어요?” “혹? 입양?” “아니야 입양은 아닌 것 같애. 아들이 엄마랑 똑같은데 뭘 그러니 입양은 아니야” 이렇게 한 병실에 있는 분들이 서로 궁금한 마음을 주고



받았다. 대현이를 위해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아직은 손자냐고 묻는 사람은 없지만...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대현이를 위해 아빠와 엄마는 작은 두 손을 모은다.

2006. 6. 8 / 튼튼해진 체력

요즘 우리 대현이의 체력이 아주 좋아졌어요. 살짝 오르라고 한약을 3첩 먹었는데 효과를 보는 것 같네요. 저녁 먹은 후 아빠랑 누나랑 운동하는 코스가 있는데 함께 간답니다. 체력이 많이 향상되어서 데려가도 아빠나 누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답니다. 달리기도 잘 하고... 함께 운동을 나갔던 아빠, 아들 자람이 늘어졌지요. 대현이 때문에 더욱 높아진 아빠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애틋한 아들 사랑에 폭 빠진 우리 아빠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은가 봐요. 그래도 대현이는 엄마편이래요.



2006. 5. 25 / 큰아빠 셋별이의 배신에 울다

셋별이 큰아빠는 아이들을 참 좋아한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커서 아빠의 장난을 귀찮아하던 참에 셋별이가 우리집에 왔다. 아빠는 새로운 장난거리가 생겨 좋아했고 아이들은 아빠가 자기네를 귀찮게 하지 않아 서로 내심 좋아했다. 별이도 그저 이뻐해주는 큰아빠를 무척 따랐다. 그런데 오늘 아침, 텔레비전에 독도가 나와서 큰아빠가 “셋별이하고 큰아빠하고 저기 가서 살자” 하니, 셋별이 일인지하에 “싫어요. 나는 큰엄마랑 여기서 살거예요!” 우하하하!! 아무리 꼬셔도 셋별이는 어림도 없었다. 며칠 전에는 언니보다 큰엄마가 잔소리가 더 세다고 해서 날 울리더니 오늘은 큰아빠에게 배신을 때렸다. 셋별이는 자기가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모르고 아침을 맛나게 한 그릇 비웠다.

2006. 6. 26 / 능청군과 애교양

올해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꽤나 능청스럽다. 올

해 여섯 살인 셋별이는 꽤나 애교스럽다. 물론 그 애교는 셋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으려할 때 빛을 발한다. 요즘 컴퓨터 옷 갈아입히기 게임에 재미를 들인 셋별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컴퓨터를 켜달라고 조른다. 주로 만만한 오빠에게만 즐라댄다. 오빠는 능청스러운 말과 능청스러운 몸짓, 능청스러운 행동으로 셋별이 애를 태운다. 셋별이는 “오빠야” 하며 오빠를 졸졸 따라다니며 30분을 즐라댄다. 옆에서 바람넣는 다른 식구들이 “셋별아, 애교 애교” 그러면 콧소리까지 섞어가며 “옴~빠”를 불러댄다. 그 모습과 소리가 우스워 다른 식구들은 넘어가고 오빠는 더 능청스럽게 애를 태운다.

2006. 7. 12 / 셋별이의 여름나기

비가 오는 날은 밖으로 나가지 못해 간식 먹고, 텔레비전 만화 보고, 죄없는 피아노만 두들겨대고... 며칠 전에는 학교 갔다 온 오빠에게 붙어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친한 척 하더니 근 두 시간동안 “책 읽어 달라, 인형놀이 하자, 셋셋셋 놀이 하자” 처음에는 재미있어 같이 놀아준 아들이 소리를 질러 가보니 리본으로 오빠 손을 묶어놓고 히히덕 거린다. 여름에 내리는 비는 모든 이에게 피해를 준다. 우리집 제일 큰 피해자는 박셋별이다. 아니 아들놈인가?..



2006. 4. 24 / 커트머리의 혜원

혜원이 머리 묶고 풀고 하는 걸 힘들어 해서 단발머리로 커트를 했습니다. 더 귀엽다 고들 하시던데 어떡가요. 제가 보기에는 더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혜원이가 좀처럼 포즈를 안취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찍어야 하는데 폰카라 성능이 따라오지 못해서 한 박자 늦게 찍습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대안가정 가족 모두들 혜원이 미소를 보이고 힘내세요 ^o^~~



2006. 6. 17 / 응원하는 혜원이

토고와 경기가 있던 날 밤에 자기도 빨간 옷을 입고는 대~한민국'과 '오 필승 코리아'를 하는데 너무 귀여워서 얼른 찍었는데 표정은 영 어색합니다. 혜원이가 아빠가 사준 인형과 장난감을 지금 잘 갖고 노네요. 혜원이가 워낙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해서 튼튼한 줄 알았는데... 6월 4일에 두드러기 증상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혈액검사 후 유아성 빈혈이 있다고 하면서 우선 한 달간 철분 영양제를 먹어보고 차도가 없으면 다시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엄마의 영양도 있고, 어려서 우유를 많이 먹은 것도 이유가 된다고 하더군요. 걱정이 되었는데 송광익 원장님의 조언을 빌리면 그리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하여튼 우리 혜원이가 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혜네

2006. 6. 12 / 만약에 말야..?

“다혜가 친 엄마한테 돌아가면 너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어떤 면이 좋고 어떤 면이 안 좋은데?”

“다혜가 너무 귀여워서 (가면) 안 좋고, 자꾸 귀찮게 해서 (가면) 좋 구..”

“그럼 다혜는 어떨까?”

“엄마한테 가면 좋겠지..”

다혜는 잠자리를 위해 퍼놓은 요 위에서 앞구르기를 하며 깔 깔거리다. 큰언니랑 가짜엄만 잠시 생각에 잠겨본다.



2006. 7. 4 / 초보엄마 길들이기

차에서 잠든 다혜를 깨워서 내리려하니 다혜가 그만 심통이 났다. 예고 예고... 특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다혜의 심통이 더 유별스럽기 때문에 억수루 애먹는다. 나름대로의 처방은 울게 놔두는 것이다. 달랠수

록 더욱 강도가 세지는 걸 익히 아는 터라^^ 하지만 매순간 난처하고 좌절스러운 맘에 나도 힘들다. 다혜와 함께 한 2년여의 시간이 다혜의 성품에 별로 도움이 못되었는가 싶기도 하고, 아주 잠시지만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아이를 잘 다독여서 화 안나게 하고 서로가 웃으며 살았음 참 좋겠다^^ 아직도 초보엄마 수준인 나는 괴롭다~ 다혜야, 잘~ 해보자. 응? 지발 소원이다~ ㅎㅎ

2006. 7. 14 / 다혜엄마 만나기...

다혜에게 대구 엄마 만나러 가자고 하니 좋다고 하네요^^ 내 마음도 좋지요. 옆에 살던 예진이가 친가정으로 간다 하고 우리도 다혜 엄마를 만난다고 하고...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마음이 좀 복잡하답니다. 하지만 이제 다혜도 다 알았으면 좋겠네요. 자연스럽게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렇게 되

겠쥬. “다혜야.. 너는 나폴나폴 날개 달고 우리에게 오더니 내 마음 깊은 곳에 아예 등지를 틀었구나. 예쁜 아가야, 너를 기다리는 네 엄마의 맘을 너는 아니? 아직은 모르거라... 아직은 알지 말거라... 하지만, 인젠가는 너도 그 맘 알아버려서 가슴깊이 엄마를 품게 될거야..”



예진이네

2006. 6. 25 / 예진이 아침 엿보기

빨리 먹고 어린이집 가야지 “예~!” 대답은 시원하지만 입은 오물오물 할 건 다한다. “어린이집 다녀오겠습니다~” “놀지 말고 곧장 가라!”엄마의 호통소리와 함께 힘찬 대답을 한 후 쏜살같이 뛰어나간다. 그러나... 길까지 달려가서는 담에 핀 노랑꽃의 손짓에 우뚝 멈춘다. 그리고 담에 핀 꽃과 마냥 그들(?)만의 이야기꽃이 핀다. 창문으로 언젠까지 하나 몰래 보노라면 어린이집은 까맣게 잊어버린다. 아니나 다를까, “짹아!!” 엄마의 호통소리가 온 동네에 울린다. 이크~ 들켰다. 엄만 어떻게 나에 대하여 다 알지?? 이런 생각

을 하면서 이내 어린이집으로 달음질친다.

2006. 7. 18 / 예진이를 보내며...

이젠 예쁜 예진이가 갔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훌쩍 갔다. 아빠한테 갔으니 잘된 일이라고 채근하지만 웬지 마음 한구석엔 황하니 바람이 분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있는 적이 많다. 내가 왜 이러지 생각을 챙기지만 뭘 해야 될지 생각나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린다. 나중에 진이가 우리 생각을 할까? 욕심이 생긴다. 예진이 처지를 생각하며 좀 강하게 키운다고 하긴 했는데 무엇이 진이를 위한 것이었는지 새삼 뒤돌아보니 아쉬운 것 투성이다. 돌아서서 몰래 찔끔 눈물을 닦는다. 남편도 말이 없다. 서로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다. 어디 놀러가는 줄 알고 좋아서 뺨이뺨이 하고 떠나던 진이가 눈에 밝힌다. 마지막 제주여행때 사진을 보려니 맘이 더 아려온다. 그래, 무럭무럭 자라라, 건강하고..



혜윤이네

2006. 5. 29 / 헤어스타일

혜윤이 그동안 아주 어렵게 기른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사진으로 예뻐진 모습 올려야 되는데, 아마 오빠들이 올려주겠죠. 아침마다 등교 준비하느라 부산한데 머리가 늘 예쁘게 되지 않아서 잘랐답니다. 아들만 돌 기르다 아침마다 머리 씨름에 혜윤이 본인도 머리 묶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할머니 보고는 절대로 자르지 않겠다고 하더니만 더 예뻐진다니깐 의심을 하면서도 따라왔죠. 근데 다 자르고 나더니만 맘에 들었는지 더 예뻐졌다고 좋아했죠. 깍쟁이!!!! 왜 절대로 자르지 않는다고 했냐니깐 옛날 아빠처럼 깎을까봐 그랬다나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예전에 모두



혜윤이가 남잔 줄 알았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은 더 푹푹해 보이고 꼭 깍쟁이 같아요. 이담에 사진 올려 드릴게요~ 기대하시라.

2006. 7. 14 / 아쉬움

혜윤이와 헤어져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온가족이 함께 식사 시간 맞추기도 힘드네요. 늘 병원 다니느라... 송별식 겸 우리 가족 생일 몽땅 모아서 외식을 갔습니다. 먹는 걸 쥔 좋아하는 혜윤이. 뷔페식이라 계속 드나들며 정말 실컷 먹었죠. 혜윤이 쿡쿡 받들거린다며 오빠들이 웃었죠. 혜윤이 좋고 즐거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끝까지 혜윤일 보살피주지 못해 못내 미안하고 아쉽습니다. 제 형편이 참으로... 혜윤이 이별연습 서서히 해야겠네요. 너무 갑자기 가면 많이 서운할 테니깐요. 할머니 너무 좋아했는데 서로가 한참은 그리울거예요.



해뜨는집

2006. 5. 26 / 드디어 제주도로...

드디어 우리 가족 제주도로 간다. 여행 일정도 하나도 짜지 못했고, 뭘 챙겨야 할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간 29일 비행기나 시간 맞춰 탈런지 모르겠다. 혜성에게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자!" 하면 뭘 아는지 손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그려보이며 "비용~" 한다. 사실 이번 여행의 최대 난제는 혜성이다. 한창 설치고 위험한 짓 많이 할 때라 온가족이 매달려도 역부족일 때가 많다. 카시트에 앉으면 죽을 듯이 울어대는 통에 못 앉았는데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던지 카시트에 적응시키려 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이 아니고는 꿈도 못 꿀 제주도 가족여행. 이제 며칠 후면 드디어 우리 가족의 제주도 여행이 시작된다.

2006. 6. 28 / 암마!

혜성이가 제멋대로 할 때 아빠가 주로 하는 말이 "암마! 어찌구 저찌구..."인데, 어느날인가부터 거꾸로 아빠가 혜성에게 "아빠! 암마!" 소리를 듣는다. 말 조심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잊어먹고는 두 돌짜리 아들에게 되돌려 받는다. 하긴 요즘이 말만 따라 하는 게 아니다. 두 손을 뒷집 지고 서서는 호령하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외할아버지고, 한 팔을 휘저으며 궁시령거리며 눈을 치켜뜨는 걸 보면 외할머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말투까지도 흉내낸다.

세달 빠른 사춘형아 하고는 맨날 싸우면서도 정이 붙어 누군가 하나를 혼내키거나 나무라면 나머지 하나가 대들거나 말린다. 이 두 꼬맹이가 아침저녁으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면 진풍경이 벌어진다. 골목이 시끄럽도록 이별행사를 치르는 통에 동네 할머니들이 즐겁다. 얼마 전부터는 조금 컸다고 애법 말귀도 먹고, "네!" 대답도 잘 한다. 하지만 그만큼 반항도 제대로 하니 참...



▲ 아빠가 사준 선물이 한가득~!!

혜원이가 오랜만에 아빠와 만났습니다.
대안가정 가족이 된지 1년이 다되도록 아빠와 못 만났지만 혜원이는 금새 아빠와 다시 장이 들었습니다. 5월과 6월 두 번이나 혜원이를 만나고 돌아간 아빠는 앞으로는 자주 혜원이와 만나기로 약속하셨답니다.



▲ 혜성이 삼촌동생과 함께~ 해뜨는집 4총사!!

혜운이가 해뜨는집으로 이사했어요^^
대안가정 할머니, 할아버지의 암투병으로 인해 새로운 대안가정을 찾아야하는 혜운이가 병학동안 해뜨는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언니들이랑 신나게 노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른답니다. 혜운이가 해뜨는집에서 건강히 잘 지내다 새로운 대안가정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솔이, 셋별 자매가 4개월이 지나
아빠와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3월, 각기 대안가정을 찾아 생활하고 있는 솔이와 셋별이가 아빠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1박2일 동안 집에서 함께 지내며 할머니, 삼촌들도 만나고 즐겁게 지내다 돌아왔습니다.

〈**넉달만의 만남 이야기 - 솔이 · 셋별이 아빠**〉

안녕하세요, 저는 솔이와 셋별이 아버지입니다.
올해 초부터 저희 아이들은 대안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와 이혼을 하여 제가 당장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 당분간 떨어져 있어야 할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구청에서 대안가정운동본부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고아원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아이들이 살고, 인터넷으로 아이들 소식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들었습니다.
3월에 아이들을 맡기고 조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소식을 보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약 4개월 만에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친자처럼 잘 키워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주 예쁜 모습이고, 매우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불안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더욱더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서입니다.
끝으로 대안가정운동본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솔이와 셋별이를 잘 키워주시는 큰엄마, 큰아빠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안정적인 친가정 복귀 과정이 어렵다

정민경 상담팀장

한 아동이 위탁의뢰 되고, 대안가정에서 보호·양육되다가 친가정으로 복귀하기까지 모든 과정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아동이 위탁가기 전보다 위탁이후에 더 적극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이야기할 만큼 대안가정에서의 양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귀결점이 아동의 친가정 복귀이기 때문에 자칫 친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기쁨에 그 과정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 친가정의 변화된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생각한다면 친가정 복귀 역시 절대 소홀하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위탁종료 후, 아동의 안정적인 친가정 복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친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친부모들은 위탁종료가 결정되면 바로 아동을 데리고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친가정 복귀 역시 귀가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아동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도록 친부모와 잦은 만남을 가지면서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일부 친부모는 이 과정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귀찮아한다. 심지어 어차피 겪어야 할 상황인데, 시간을 끌면서 여러 차례 혼란을 주는 것보다 충격이 크더라도 한번에 해치우는게 더 낫지 않겠냐면서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아동의 입장이나 심리적인 혼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른의 잣대로 접근하는 경우, 답답하고 안타깝다.

하루라도 빨리 아동을 만나 함께 살고자 하는 친부모의 마음, 잠시나마 다른 가정에 아동을 맡겨야 했던 미안함과 죄책감 등이 어우러져 그럴 수 있으리라 공감은 한다. 하지만 아동의 입

장에서 보면 참 혼란스러운 일이다. 아동이 대안가정으로 올 때 부모와 헤어지면서 느끼는 상실감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두려움 등으로 힘들어 하듯이, 친가정으로 복귀할 때도 대안가정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다시 친가정에 적응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아동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충분한 이해 없이 갑작스럽게 친가정으로 복귀하게 되면 대안가정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고 생각하기도 한다.

친부모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친가정으로 복귀하게 되는 아동을 볼 때면 안타까움이 앞선다. 언젠가는 네가 감당해야 할 상황이 거늘... 단지 그 시기가 조금 당겨졌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커서 지금의 상황을 감당해 낼 능력이 키워지면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대안가정 부모들이 정들었던 아동과 이별하는 것만으로도 힘들텐데 아동에 대한 걱정으로 얼마나 더 힘들실지 걱정이 된다. 또 아동의 불안정한 친가정 복귀가 다 내뺀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럽다.

친부모의 상황이 안정적일 수 없다보니 아동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친부모가 아픈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고 아동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앞세우기 전에 그 동안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동은 작은 것에 쉽게 상처받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랑하는 내 아이를 위해 친부모가 조금 더 인내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사람은 들이는 게 아니라는데

정원익 (예진이네 대안가정 부)

이젠 예진이가 아빠 품으로 돌아갔다. “짐승은 들어도 사람은 들이는 게 아니라는데...” 아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던 말이 새삼 귓가에 지나간다. 아직 솜털도 못 벗고 온 것이 엇그젠데 어느새 1년 7개월하고 열흘이 훌쩍 지나갔다. 막상 진이가 간다는 말에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그저 무덤덤하다. ‘언젠가는 보낼 아인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나 보다. 그런데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왜 생각이 멍한지 알 수가 없다. 자꾸 진이 눈길을 피하게 된다. 진이가 돌아갈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셨던지 한 달이나 먼저 휴가를 잡아 놓았던 것이 예진이와의 이별여행이 되어버렸다.

여행 내내 기회 있을 때마다 그저 되는데로 친언니, 친아빠와 엄마 이야기를 주섬주섬 떠넘긴다. 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테이블의 끊어진 곳을 맞추려 하지만 너무 많이 엉크러져 버린 것 같다. 내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았던지 참다 못해 집사람이 끼어든다. 어찌구 저찌구... 내가 들어도 두서가 없는 이야기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한다. 진이 머리엔 비행기, 곰인형 나라, 소인국 장난감, 말타기 등으로 꽉 차있다. 귀가 따가웠던지 드디어 진이가 반응을 한다. “우리 다 같이 살면 되잖아!”

진이가 떠난 뒤로 수시로 엄습하는 침묵(?)에 아직 익숙지가 않다. 아침마다 시끌벅적하던 소리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담 너머 모든 집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집만 시간이 멈추어 있다.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온 집안 구석구석에 진이의 잔재들이 마치 전쟁이 끝난 뒤처럼 너부러져 있다. 피아노 바퀴에 숨어있던 진이 자석놀이 구슬이 윙크한다. 피아노 위엔 색종이로 붙여서 자기가 만 들었다고 자랑하던 구겨진 종이 액자 속 예진이

가 웃는다. 고개를 돌린다. 침대 밑에 처박혀 있던 진이의 줄무늬 양말 한 짝이 콧등을 시큰하게 한다. 화장실에 간다. 진이의 작은 분홍색 슬라이퍼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집사람도 나로서 저 자람이 치우겠지 하면서도 그대로 있다. “아빠, 왜 내 치약 써!” 아직도 진이가 돌아보고 소리치고 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더니...

남들이 진이 이야길 듣고 우리에게 좋은 일한다고 말했고, 그런 줄 알았다. 그러나 오히려 진이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좋은 것을 주고 갔다. 가슴이 아픈 만큼 메마른 가슴을 일구어 주었고, 눈물이 나는 만큼 우리의 말랐던 샘물에 원천이 솟게 하였다. 빈자리만큼 또 채워져야 할 자리를 만들고 갔다. 우리는 또 누군가 하늘에서 보내실 천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그동안 함께했기에 지금까지 재미있게 지내온 가족들, 다혜네, 대현이네, 나래네, 성민이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열악한 환경가운데에서도 모든 아이를 내 아이같이 끌어안고 매일매일 산고를 치르는 대안가정운동본부 김명희 국장님, 민경씨, 효점씨, 그 외에 잘 모르지만 일기장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린다.

진이를 보내면서
2006년 7월을 보내며



다혜가 엄마를 만나던 날 !

배순균 (다혜네 대안가정 부)

그 날은 우리집 모든 가족들에게 매우 뜻 깊은 날이었다. 다혜가 우리집으로 올 때 가져온 보물 속에는 아기일 때 엄마와 찍은 사진이 몇 장 있었다. 그래서 가끔씩 다혜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 아이가 다혜고, 옆에서 꾸꾸를 주는 분은 다혜 진짜 엄마란다. 진짜 엄마는 대구에 계신다. “다혜 진짜엄마는 어디에 계신다고?”, “대구” 라고 아무지게 대답을 했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이제 다혜도 진짜 엄마는 대구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혜야, 진짜 엄마 만나러 가야지!”

다혜는 신이 나서 대구로 향했다. 하지만 가짜 엄마와 가짜 아빠는 설레임과 긴장 속에서 다혜 엄마를 만나러 갔다. 다혜 엄마를 만나면서 더 긴장하고 설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다혜 진짜 엄마는 2년 반만에 처음 만나는 다혜를 위하여 과자를 한 보따리 사 놓고 몇 일 잠을 제대로 못 잤다면서 매우 긴장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리를 많이 흔들었다. 나름대로 긴장을 풀고 있었던 것이다.

다혜를 안고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던 다혜 엄마의 음성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다혜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어느듯 커버린 다혜를 보고 있으려니 그럴 만도 했을 것이다. 다혜는 노래를 잘한다. 진짜 엄마를 만나고 한 마디 말도 없는 다혜에게 노래를 불러 보라고 했지만 꼭 다문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다. 사진에서 보았던 엄마의 모습과 현실에서 만나는 엄마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모르چه 하면서 조용히 과자를 먹는 다혜의 모습은 그 동안 보아왔던 모습과 전혀 판판이었다. 그러면서 다혜가 제일 혼란스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우리 가족이 대구로 가면서 어짜피 가는거 하루 즐기자. 그래서 점심 먹고 달성공원 가서 동물들 구경하고 아빠 친구 만날 계획을 짜 놓았다. 다혜가 엄마에게 한 마디 말도 안하고 뽀뽀하라 해도 그 잘하던 뽀뽀도 안해서, 나름대로 작전을 짰다. “다혜야, 원숭이 보러 갈 거지? 그럼 엄마에게 뽀뽀해야지. 그러면 원숭이 보러 갈거야.”

그 말에 다혜도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뽀뽀를 했다. 원숭이가 그렇게도 좋은가!! 다혜는 달성공원에서 동물들 구경하면서 정신이 없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아빠, 저기 코끼리 있다. 빨리 가자.... 엄마 아빠는 벤치만 보면 앉고 싶은데 아이들은 구경하고 싶어 안달이다. 그럼 너희 들끼리 가서 구경하고 이리로 와. 이래서 한 숨 돌리기도 했다. 그렇게 좋은 원숭이 구경을 미끼로 다혜 엄마와의 첫 키스 (뽀뽀하라 했더니 엄마는 키스를 했다-찜하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다혜는 입술이 아주 예쁘게 생겼다. 그 예쁜 입술로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이 가짜 아빠이다. 그러나 다혜에게는 진짜 아빠다. 언젠가는 다혜도 알게 되겠지만 진짜 아빠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진짜 아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사랑스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다. 다혜가 우리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혜가 있으므로 우리 가족이 더 즐거울 수 있었으니 다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해준 하나님의 보물이다. 다혜로 인하여 더 많은 가족이 즐거워 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해 본다.

2006년 무더운 8월의 어느 날



■ 상담현황 (2006년 2/4분기)

□ 상담내용별 현황

상담 내용 월	아동 위탁상담			대안가정상담			지원 상담			기타	계	아동 친부모 만남	신규 신청 가정	신규 의뢰 아동
	이혼위탁 의뢰상담	친부모 상담	대안가정 신청상담	양육 상담	행정	주치의	타기관 연계							
4월	5	8	1	9	10	-	3	2	38	-	1	1		
5월	2	11	6	12	10	-	4	2	47	1	2	1		
6월	7	11	2	14	2	1	4	3	44	1	-	3		
분기계	14	30	9	35	22	1	11	7	129	2	3	5		

□ 상담유형별 현황

월	상담 신청	전화상담	웹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기타상담	계
4월		37	1	-	-	-	38
5월		39	4	4	-	-	47
6월		38	2	4	-	-	44
분기계		114	7	8	-	-	129

■ 본부소식

• 여름바다로 큰캠프가요~!

8월 21일~23일, 포항 월포해수욕장에서 '대안가정아동'의 가정위탁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두 번째 프로그램인 큰캠프가 열립니다. 작은캠프의 성원에 힘입어 큰캠프도 보다 신나고 알찬 프로그램들로 채우고자 합니다. 안전제일!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 여름휴가 다녀왔습니다

큰 캠프 준비로 여름이 바쁠 것 같아 6월 초부터 차례로 이른 여름휴가를 마쳤습니다. 특히 김명희 사무국장 가족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9박10일 제주여행을 다녀왔지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 감사합니다.

■ 아이들 소식

• 예진(6세, 여) 친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7월 14일 예진이 친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안가정 가족으로 지낸 지난 1년 7개월 사이 몰라보게 예빠진 예진이. 대안가정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이 앞으로의 삶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 예진이가 늘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길 바랍니다.

• 혜윤(8세, 여) 새로운 대안가정을 찾습니다

8개월 전, 대안가정 가족이 되어 온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지낸 혜윤이가 다시 새로운 대안가정을 찾아야 합니다. 대안가정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이 모두 암투병에 들어가셔서 가족들이 혜윤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상황이 급해 여름방학동안은 해뜨는집에서 지내며 새로운 대안가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혜윤이와 혜윤이네 대안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주현(17개월, 남) 대안가정을 기다립니다

이혼 후, 아빠가 주현이를 키우고 있지만 운영하던 가게도 문을 닫고, 부채도 상당해서 참으로 막막합니다. 게다가 너무 어린 주현이를 양육하느라 이리저리도 저리저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2년 정도 주현이를 위탁하고, 그동안 조선소에서 새로 일을 배울 계획입니다. 2년 이상 주현이를 사랑으로 보살피줄 대안가정을 찾습니다.

■ 외부행사

• 『제2회 가정위탁상담원 교육』 참가

6월 22일~23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주최한 『제2회 가정위탁 상담원 교육』에 장효점 상담원이 참가했습니다. '해결중심적모델을 이용한 상담기법' 교육인데 참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2006년 전국희원사업워크숍』참석

6월 29일~30일, 시민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한 『2006년 전국희원사업워크숍』에 장효점 상담원이 참석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활동가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시지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지고등학교 김지숙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대안가정운동본부와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해 소개하였고, 학생들이 좋은 곳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십시일만 모금을 하여 보내왔습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지고등학교 김지숙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후원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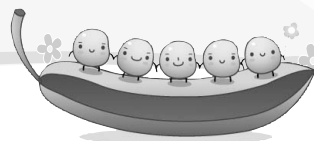
이마트 영수증으로 후원하기

이마트 영수증으로 대안가정운동본부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금액의 0.5%가 후원금으로 적립됩니다.

1. 사무국으로 영수증(전국 전지점)을 보내주시거나,
2. 고객만족센터나 무인적립기에서 아래 번호로 직접 적립해주세요!! (대구지역 전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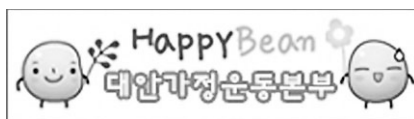
월배점 168번	만촌점 97번
성서점 146번	칠성점 94번
반야월점 52번	경산점 39번

이마트에서 즐겁게 쇼핑하신 후에는
'영수증 후원' 잊지마세요!



대안가정운동본부 해피로그 놀러오세요!

네이버 해피빈 - 대안가정운동본부 해피로그에 오시면
핸드폰, 신용카드, 네이버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시 또는 정기후원이 가능하답니다~



<http://happylog.naver.com/foster.do>

꼭 대안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은 공감하되 당장 실천할 수 없는 분들은 대안가정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예금주 (사)대안가정운동본부

대구은행 : 068-05-005600-9

농협 : 718-01-176941

국민은행 : 602-01-0688-119

조흥은행 : 801-01-276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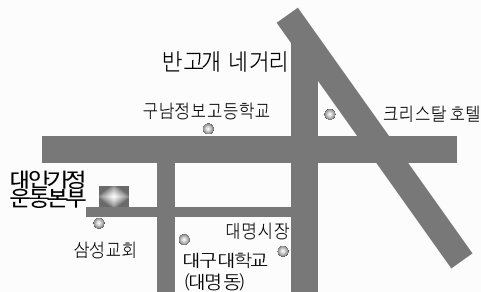
☆ 대구은행의 경우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사무실에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며, 타은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로로 납부하시려면

1.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 발송하는 지로용지로 은행에서 납부
2. 인터넷 지로 납부

<http://www.giro.or.kr> (지로번호 : 6307008)

대안가정운동본부 약도



버스노선 : 일반 202, 609, 618, 650, 836
좌석 706